

보낼 수 없는 메일주소 “DKulp@M-S-G.com”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 센터장 김 선 응

대일 컬프(Dale Kulp).

나는 솔직히 여러 해 동안 이 분을 잊고 있었다. 2009년 여름에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의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 있는 Survey Research Center로 연구년(안식년)을 떠났고, 몇 개월 뒤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으로부터 이 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들었다. 그리고는 약 7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시 연구년을 맞았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 분에 대한 기억과 함께 많은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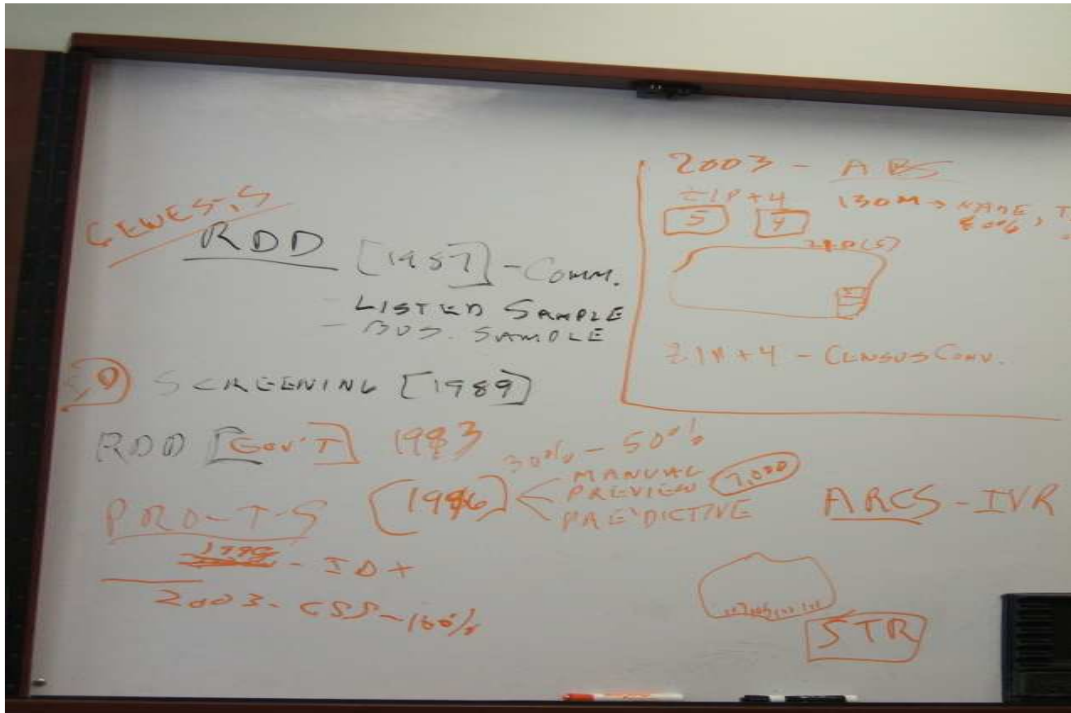
이 분과 나와서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02년 초. 당시에 나는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의 Survey Research Center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었고 가족과 함께 앤아버에서 필라델피아 근교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 지도교수님(Jim Lepkowski)의 주선으로 ‘Genesys(Marketing Systems Group)’라는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사는 통계학자인 ‘대일(Dale)’이 세워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으며 미국 내에서 ‘RDD 전화 표본(RDD telephone samples)’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가서 알게 된 일이지만 지도교수님인 Jim과 같은 대학의 Bob Groves(나중에 미국 센서국(통계청)의 국장(청장)이 됨)도 이곳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

10시간이 넘는 긴 여정 끝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해서 다시 교외열차로 갈아타고 필라델피아 근교의 한 역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리자 한 중년의 남자가 플랫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분과 처음 만남이었다.

이 분은 본인의 차로 우리가 머무를 회사 근처의 한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저녁 때 호텔 내의 인도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식당에 내려갔고, 거기서 대일과 그 회사의 임원인 애슐리와 함께 생전 처음으로 진짜 인도 음식을 먹었다. 애슐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어가 능통하지는 않지만 나와 우리 가족이 아무래도 영어가 서투를 것 같아 통역 역할을 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영어가 쓸만 했는지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대일은 나와 우리 가족을 자신의 회사로 데려갔다. 도착해서 내 가족은 애슐리가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돌봐주었는데 이곳 저곳 바깥 구경을 시켜주었던 모양이다. 나는 대일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서 긴 대화를 이어 나갔다. 먼저 대일은 Genesys의 RDD Sampling System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대일도 통계학자이고 나 역시 통계학을 전공했기에 회의는 부드럽게 이어졌다. 중간에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으면 다시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대일은 RDD Sampling에 관한 약 20년간의 역사적 사실과 실재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RDD에 관한 '대일'의 자필 설명

그리고 중간 중간에 회사 내 각 부서를 돌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해당 직원이 각 부서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출력을 해주기도 하였다. 점심시간에도 같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갔다. 이때에는 회사의 거의 모든 임원진이 자리를 같이 해주었고 한국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렇게 이어진 대일과의 대화는 저녁시간 가까이 돼서야 끝났고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대일이 외부 출장이 있어 직원들과 함께 장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 누가 자신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고객도 아닌 한 연구자에게, 그것도 낯선 나라인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가족과 함께 부푼 가슴을 안고 다시 기차로 앤아버로 돌아왔고 대일과의 대화는 그 뒤 2007년에 다시 이어졌다(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여론연구학회(AAPOR)에서 몇 년간 계속 만났다).

2007년 방문 시에는 내가 동국대에 몸을 담고 있을 때여서 한국에서 필라델피아로 곧바로 향했다. 내 마음 속에는 이전에 Genesys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다시 체험하고, 대일과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이전에 묵었던 같은 호텔에 머물렀고 이전과 거의 같은 일정으로 대일과 회의를 진행했다. 내가 챙겨간 한국 자료들도 한 몫을 했다. 그런데 예상 밖의 화두가 생겼다. 대일과의 회의 중간에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과연 누

가 Genesys RDD sampling(List-Assisted RDD sampling)을 구현할 것인가?”였다. 한국은 미국처럼 전화번호의 수집이나 판매를 위한 산업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누가 이런 연구에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뜻밖에도 대일이 내게 말했다. “네가 하면 되지 않겠나?”. 나는 말했다. “내가요?” “나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답을 했다. 그러자 대일은 “나 역시 이 회사를 만들 때 그랬다”라고 말했다. 갑자기 내 머리 속이 너무 복잡해졌다. 그것이 한국에서의 RDD 연구의 서막이었다.

내가 그 회사를 떠나기 전 날 저녁에 대일은 본인이 단골로 가는 레스토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식사 전 애피타이저로 나오는 생강과자를 먹어보라고 했는데 맛이 매우 특이해서 아직 내 머리 속에 애뜻하게 남아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지 못한 RDD sampling 이외의 개인적인 화제를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일의 사람됨을 깊이 느꼈고 그 때 대일이 내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너는 언제와도 환영이야.”

그리고 약 4년 뒤인 2009년 여름에 연구원으로 미국에 와있을 때 제자인 홍성준 박사와 박소형 박사(당시에는 둘 다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센터 연구원이었음)와 함께 Genesys를 방문했다. 이때는 우리가 한국에서 개발한 List-Assisted RDD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대일은 성공적이라고 평을 해주었고, 그 뒤 약 4년 뒤에 이 RDD 방법이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에 게재되어 공식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일이 “네가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내게 던진 뒤 8년만의 쾌거였다.



대일(Dale)과의 마지막 사진(2009년)

2009년 Genesys를 방문한 뒤 떠나기 전 회사 앞에서 대일과 애슐리 그리고 홍성준, 박소형과 함께 사진을 함께 찍었다(위 사진).

당시 대일의 나이가 60이 조금 넘었던 것 같다. 아쉬웠던 것은 대일 본인이 다른 일정이 있어 그날 같이 저녁 식사를 못했고 대신 애슐리가 함께 가주었다. 식사를 하면서 애슐리가 말을 해주었는데 대일의 아버지가 병으로 위중하다고 했다. 그것이 대일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몇 개월 뒤 나와 내 가족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 집을 방문했는데 “정말 세상이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촌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애슐리) 이야기를 우연히 꺼내게 되었는데, 사촌동생과 사둔지간 이었고 서로 친분 있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 때 사촌동생이 얼마 전 그 회사 CEO(대일)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뒤 며칠 후 사촌동생과 함께 애슐리를 다시 상면하게 되었는데 서로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 때 대일에 관한 이야기를 애슐리로부터 다시 들었다.

당시에는 대일의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서 안타까움만 표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곧 다시 연구년이므로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대일을 만나고 싶다. 그의 묘소 앞에서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신은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제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2016년 12월

‘2017년 7월 연구년’에 ‘애슐리’의 안내로 대일의 묘소를 방문

